

줄어든 '음주 범죄', 거리두기 해방에 긴장

코로나 전보다 출동 건수, 음주 사고 감소 위드 코로나부터 신고 건수 다시 증가 추세

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회식 등 미뤄졌던 술자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음주 관련 범죄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방역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 0시부터 전면 해제됐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을 포함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영업이 돌아오면 조치가 사라지면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내지만, 일선 경찰들은 확대되는 술자리만큼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 마냥 반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술집이 일찍 문을 닫으면서 주취자 대응이 줄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연도별 서울 일선 경찰서 112신고 출동 현황을 보면 코로나 유행 직전(2019년)과 그 이후(2020년·2021년)를 비교했을 때 전체 31곳의 경찰서 중 27곳에서 출동 건수가 감소했다.

경찰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음주 사고도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9.7% 줄었고,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68.4%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를 체감했던 서울 영등포구 관내 한 지구대의 A팀장은 "앞으로 좀 더 바빠질 것 같다"며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택시가 안 잡힌다, 누군가 쓰러져 자고 있다 이런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근에 노숙인 쉼터가 있는 파출소의 B팀장도 "노숙인들이 술 먹고 다 풀리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아마 날이 풀리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아마 날이 풀리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신고가 늘어날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방역 수위가 점차 낮아졌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경찰 분석 결과 부산에선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 오후 11시 오후 12시 등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새벽시



간 음주교통사고가 각각 22.2%, 30%, 37.5% 증가했다. A팀장은 "이미 신고는 늘어나고 있다"며 "9시 제한일 때 저녁 신고 건수가 20건 정도였다면 최근엔 기본적으로 50건은 접수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지침 관련 단속이 줄어들면서 경찰이 부담을 더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팀장은 "기준엔 노력

방 불법 영업과 관련된 신고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유흥가 일대나 음주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전·출입로 등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마지막 주 정기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환기자



한미연합훈련 시작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되며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는다.

757일 만에 되찾은 일상... "마스크는 계속 써야"

거리두기 종료...영업 24시간·단체 회식 가능

거리두기 전면 완화		4월18일부터
운영시간	24시	해제
사적모임	10인	해제
행사·집회	299인	해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해제
마스크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실외 마스크 착용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실내 취식금지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금지	1주 간의 준비기간 4월 25일부터 해제

18일 오전 0시를 기해 거리두기 없는 일상이 시작됐다.

사적모임과 행사·집회 인원 제한이 모두 풀리고 식당·카페·술집은 24시간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 단, 마스크는 현행대로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방역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0시부터 전면 해제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 이후 757일, 약 2년1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춰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해왔다.

지난해 1월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최대 5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수도권 유행이 거세던 7월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제한했고, 이후 소폭의 완화를 거듭하면서 전일까지 '모임 10명·밤 12시'로 규제했다.

이날 0시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사

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와 종교시설의 참석 수용 인원 제약도 사라진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날 오전 5시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고위험시설은 선제 검사와 접촉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역시 유지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2주간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로 실내 착용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실외 마스크도 장시간 집회 규모에 따라 위험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하거나 신종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오유나기자

'아빠찬스 의혹' 감사 만나...교육부 "공문 오면 종합 검토 예정"

교육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등 특히 의혹에 대해 "감사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18일 재차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 후보자 자녀 편입학 문제와 관련, "입시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경북대 감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정 후보자 관련해 교육부로 보낸 감사요청서가 접수됐는지 묻는 말에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공문이 접수 안 됐다"며 "(대학 측이)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접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될 경우 통상적인 기간, 절차를 묻는 말에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를 요청했을 때 그 내용의 구성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보라고 판단하면 담당 부서와 감사관실이 함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대학이 감사를 언제 받았는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사안과 관련해 경북대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 일정, 절차, 감사 형태(특정감사,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할 때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편입으로 입학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인 17일 정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학 과정은 공정했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 압력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에서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북대도 같은 날 홍원화 총장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입시를 관리해 왔다고 자부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련의 의혹은 대학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순천경찰, 외국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운전면허교실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에서는 지난 13일 순천대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무안경찰,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 개최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14일 각 과장, 계·팀장, 지역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안전한 무안 만들기'라는 주제로,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치안성과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담양경찰, 재해·재난 취약개소 합동점검 실시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재해·재난 취약지역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경찰, 여천·여수농협과 마을자위방범용 CCTV 기증식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14일 여수시 여천농협 본점에서 여천·여수농협과 마을자위방범용 CCTV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주남부소방, 1분기 구급 출동 전년 대비 14.2% 증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2022년 1분기 구급 출동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동부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재난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슬비기자